

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외국사례

□ UN의 권고에 따라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중. 이중 주요 6개국(미국, 캐나다, 네덜란드, 프랑스, 일본, 멕시코)의 설치사례를 類型別 및 國家別로 분석

< 설치유형별 사례분석 >

구 분	사 례 분 석
소 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고 정책결정권자 소속 또는 환경부등 개별부처 소속으로 대별 · 미국, 프랑스,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나 수상 산하기구로 설치 · 예외적으로 멕시코는 환경부 산하기관, 캐나다는 독립된 연방정부기관 네덜란드는 외무부의 독립재단으로 설치
성 격 · 기 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의제 21의 실천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안의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·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에만 정책자문은 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역할만 수행
위원구성 (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정부 및 산업계, 노동계, 학계, NGO 등의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으며, 30명 내외의 위원(멕시코는 72명)으로 구성 · 미국, 캐나다, 멕시코등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표도 참여 - 위원장은 대부분 민간인이 맡고 있음 · 멕시코의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이 위원장
기 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한시적인 분과위원회나 Task Force를 설치 · 네덜란드를 제외한 5개국 모두 분과위원회나 Task Force 중심으로 운영
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· 프랑스는 환경부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

< 주요국가별 사례분석 >

국 가	성격 및 구성	기능 및 활동	위원장
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- 중앙 및 지방정부·산업계·NGO 대표 3/1씩 총 33명 ※ 별도 사무국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·환경·형평을 포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- 기후변화 등 4개의 Task Force 중심으로 활동 	민간인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립된 연방정부기관 - 재계·학계·NGO 등 각 분야 및 지역별 대표 25명 ※ 별도 사무국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과 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·보고·자문 - 상설집행위원회 및 한시적 분과위원회, Task Force 중심으로 활동 	민간인
네덜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무부의 독립재단 -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2개 단체로 구성 ※ 별도 사무국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(정부정책 자문은 하지 않음) - 분과위원회나 Task Force는 없음 	민간인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상실산하 자문기구 - 재계·학계·NGO 등 분야별 대표 20명 ※ 별도 사무국 없이 환경부에서 사무국업무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환경시민단체등 NGO와 공동업무 수행 - 사안별 Working Group 운영(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없음) 	민간인
일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부처 국장급, 산업계, NGO 대표등 30여명 ※ 별도 사무국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부 자문 및 의제 21 이행여부 검토 ※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(위원장 : 총리) 별도설치 	-
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부산하 정부기관 - 정부·산업계·NGO 등 각 분야 및 지역 대표 총 72명 ※ 별도 사무국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분야의 정책입안 및 사업 실시에 대한 심의·협의·자문 - 상임집행위원회와 사안별로 Task Force 중심으로 활동 	환경부장관

※ 미국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'99.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체되었으나, Livability Task Force 등 주요 Task Force 는 계속 운영 중